

## 사례(27) 구마보우메탈(熊防メタル)

### - 불굴의 정신으로 구마모토 지진을 극복 -

- 동사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 수많은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반도체와 자동차, 액정부품 등, 구마모토에 진출해온 기업과 현지기업들을 표면처리기술로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임
- 동사는 알루미늄 소재로 알마이트나 경질 알마이트, 무전해니켈, 전도성 알마이트 등 여러 가지 표면처리를 가능케 하는 일본 최대급의 생산라인 「코스모라인」을 가지고 있음
- 동사의 강점은 기술력 및 설비에 그치지 않고, 170명의 종업원의 단결력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, 부문 간 의사소통이 한층 긴밀해지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과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

- “도금산업은 모노즈쿠리에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전력을 다해 기여를 하는 사람과 같은 존재임. 우리는 구마모토 지역의 여러 가지 모노즈쿠리 기업과 같이 성장해 왔음”
- 구마보우메탈의 마에다 히로아키(前田 博明) 사장은 이렇게 말함. 그 말이 상징하듯 동사는 이제까지 반도체와 자동차, 액정부품 등, 구마모토에 진출해온 기업과 현지기업들을 표면처리기술로 뒷받침해 왔음

#### □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

- 구마보우메탈의 전신인 마에다도금공업의 창업은 1933년. 이 분야에서는 지역에 선구자임
  - 이후 알루미늄과 철 등으로 도금가공이나 알마이트 가공, 전해연마 등의 화성처리와 같은 수많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산업계의 요망에 부응해왔음
-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은 고도경제성장의 절정기였던 1960년대. 대형 전기업체가 구마모토현 내에 진출, IC생산이 본격화됨으로써 동사의 성장도 가속됨
  - 반도체 관련 부품의 표면처리를 하는 「구마모토 방청공업」으로서 현재 구마모토종합철공단지로 이전하여, 현지기업과 지역에 진출한 자동차산업과 장치메이커들의 요망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표면처리가공을 해왔음
- 2001년에는 액정분야를 비롯한 새로운 표면처리 분야로의 진출을 시야에 넣고, 구마모토방청공업으로부터 분사 독립하여 2019년에 20년째를 맞음

- 현재는 형제회사 구마모토방청공업과 함께 표면처리기술 분야에서 도전을 계속하고 있음

## □ 일본 최대급의 생산라인

- 구마보우메탈에는 5개의 주요 생산라인이 있음. 그 중에서도 특필할만한 것은 알루미늄 소재로 알마이트, 경질 알마이트, 무전해니켈, 도전성알마이트 등 다양한 표면처리를 가능케 하는 일본 최대급의 생산라인 코스모라인임
- 반도체부품이나 대형액정 관련용 등 모든 고객의 니즈에 대응. 최대 처리치수는 3,800 x 3,200 x 300mm에 달함
- 또 가일층 품질향상에 도전하고 있음. 내마모성이 뛰어나고, 경량화도 실현한 이마이트(E-Mait) UH처리는 2012년에 중소기업 우수신기술·신제품상을 받음
- 이와 같은 독자적인 기술의 배후에는 내열성과 내부식(耐腐食)과 같은 고객니즈에 부응하여, 기존 기술을 상용화하고 축적해온 착실한 개발자세가 있음
- 그 변화는 고객의 수만큼 존재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의 원천임
- 제조에 직접 관여하는 인원 외 비하여 연구개발부문과 품질관리부문의 기술자와 영업을 담당하는 간접인원의 비율이 높은 점도 동사의 고객경쟁력을 상징하고 있음
- 이들 전문인력은 구마보우메탈로서 분사독립한 시기에 기업으로서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함
- 당시 채용했던 인재가 지금 회사의 핵심멤버가 되어 늙름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밝은 장래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음
- 2016년 12월에는 2억 1,000만엔을 투입, IoT에 대응한 차세대형 알마이트 대형가공라인을 도입.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가공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해졌음
- 마에다 사장은 독자개발의 초경질처리 등을 탑재, 가공능력은 전체로 50% 향상되어, 고부가가치 표면처리에 도전,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싶다고 하면서 가일층의 사업 확대 의욕을 보이고 있음

## □ 기술력만이 아닌 강점

- 구마보우메탈 기업의 강점은 기술력과 설비뿐만 아닌 약 170명의 종업원의 단결력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

-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동사도 설비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지진 직후부터 ‘굴하지 않는 구마보우메탈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일치단결. 복구, 부흥에 임했던 것이 결속력을 더욱 다지게 되었다고 마에다 사장은 느끼고 있음
-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고 2018년 2월에 완성하여 철골 3층의 새로운 관리동은 부흥을 이룩한 동사의 상징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담겨져 있음
- 이를 계기로 구마모토 종합철공단지 내에 분산되어 있던 생산관리 및 업무부문을 집약. 부문 간 의사소통이 한층 긴밀해지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과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
-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, 사업계속계획(BCP)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꼈다고 함
- 지진 다음날 파손을 면한 건물에 대책본부를 설치. 각 부문의 책임자를 매일 소집하여 복구의 진척상황보고와 대책회의를 했음. 현재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하여 경험을 전승, 항상 개선하고 있음
- 동사의 대처는 업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조회나 강연의뢰가 끊이지 않게 되었음
- 다른 현의 기업들로부터의 의뢰를 계기로 시작한 사내견학회와 BCP세미나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
- 담당자가 현 밖의 이업종교류회 등에 파견, BCP와 방재의식의 중요성에 관한 강연도 실시하고 있음
- 2019년 초에는 다시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. 큰 피해에 이르지 않았던 것은 다행이었으나, 지역에 따라서는 대처의 의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

#### 【기업정보】

▽소재지=구마모토현 히가시구 나가미 네니시 1-4-15	▽설립=2001년 1월
▽사장=마에다 히로아키(前田 博明)	▽매출액=15억 5,000만엔(2018년 9월기)
	▽홈페이지= <a href="https://www.kb-m.co.jp/korea.html">https://www.kb-m.co.jp/korea.html</a>

#### < 참고자료 >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견인기업』 2019년 1월 22일 <https://meti-journal.jp/p/4066-2/>